

전북도 선도기업 육성 팔걸어

대표·담당자 대상 사업 설명회서 세부 지원계획 안내

전북도는 8일 도내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선도기업 대표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선도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도를 높이는 자리로써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세부 사업별 지원계획을 안내하고, 2017년 사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도 공유했다. 2018년 지원예산은 총 52억원으로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을 보면, ▲기술개발 역량강화 지원(17건) 23억원, ▲현장으로 기술해결 지원(27건) 11억원 ▲기술력 확보 및 시장확장을 위한 마케팅 지원(50건) 5억원 ▲기업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12건) 1억 8천만원 등이다.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2010년부터 전라북도에서 자체 발굴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그 동안 총 145개사가 선정되어 5년 지정기간 동안 맞춤형 지원을 통해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여왔다. 특히, 기술상용화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최근 5년간(2012년

~2016년) 선도기업 매출액이 연평균 5.33%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기간 제조업분야 50억~1,000억 기업 평균매출성장률이 0.73%임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로 보여진다. 이에 전북도 송금현 기업지원과장은 "선도기업이 지역의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더 나아가 전국단위의 글로벌 강소기업, 월드클래스300 기업이 도내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설연휴 의료공백 제로화 비상체계 구축

도, 당직의료기관·휴일지킴이 약국·진료 대책 상황실 운영

전북도는 설 명절 연휴(2.15~2.18, 4일간)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 지정 운영 및 도, 시군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응급환자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21개소)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설 당일 등 연휴기간 중에는 환자가 쉽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자별 비상진료기관(841개소)을 지정하여 진료하며, 휴일지킴이 약국(458개소)도 의료기관과

연계 운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과 진료안내 등이 필요 할 때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하거나 시·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당직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2월 14일 오후 6시부터는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www.e-gen.or.kr) 및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App)을 통해 가장 가까운 위치에 문을 연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검색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설 명절 군부대 방문 송하진 도지사가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실 35사단을 방문해 오동일 부사단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전북산 한우, 홍콩 수출길 다시 오른다

수출 위생조건 회복 올해 45톤 규모 계약

전북도는 지난해 2월 6일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년이 경과하여 수출위생 조건을 회복함에 따라 오늘(2월 9일) 11시에 수출 업체인 ㈜축림에서 수출 기념식을 갖고 한우고기 홍콩수출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주)축림은 도축장과 가공장을 갖춘 축산물도매시장으로 홍콩유통업체(콜몰, 맥신)와 계약을 맺고 올해 한우고기 총 45톤 180여마리 분량을 수출할 계획이며, 향후 수출 물량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수출하는 1차 물량은 전북한우 광역브랜드인 총체보리한우(전북한우 협동조합) 4두분 1.2톤으로 지난 7일

도착하여 검역을 완료하고 비행기로 운송된다. 8일 열린 기념식에는 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물품목장, 이지우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남건 축산물 품질평가원 전북지부장, 김창희 전북한우협동조합장 및 회원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승구 국장은 "도내산 한우고기 수출이 재개되어 전북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축산물품질위생가공유통체인망 구축 사업 등 한우고기 수출기반을 마련하여 2015년 12월 22일 최초로 홍콩수출에 성공하였으나 이듬해(2016년 1월)와 그 이듬해(2017년 2월)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전면 중단되었다. /김진성 기자

“대형 유통업체 지역사회 환원방안 모색하라”

전주시의회 이완구 의원, 시 차원 정책 개발 촉구

전주시의회 이완구 의원(사진)은 8일 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환원 방안에 대해 5분발언을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주시 차원의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촉구했다.

전주시 내의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노력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하다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역사회 환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전주시 대형유통기업 유통상생 협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하고 대형유통업체 운영자들이 지역사회와의 의견을 교류하여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에 따라 형식적으로 일 년에 2번 만나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는 것으로는 대형유통업체들에게 지역사회의 요구를 관철

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주시가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는 '전주시 대형유통업체 상생협약 이행 분석결과'를 일부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천안시의 경우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사회 환원금액 및 순위를 공개해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 대형유통업체들 간의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유통 공룡인 대형유통업체가 지역경제를 잠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얻은 이익은 지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두환 회고록 조사 검찰 “특조위 발표 참고할 것”

전두환씨의 회고록 내용 중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중인 광주지검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 결과와 관련, 8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개월 동안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에 관한 조사를 벌여 온 특조위는 전날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육군은 1980년 5월21일과 27일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 광주시민을 향해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며 38년 전 5월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공식 인정했다. 검찰은 “5·18 당시 헬기 기동사사 사실 이외에도 (회고록에)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며, 적시된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전두환씨가 고의로 조 신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회고록에 담았는지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기록이 방대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아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며 “조사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신부는 생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인 5월21일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두환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고 표현했다. 오월 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은 전두환씨가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했다’며 지난해 4월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뉴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